

2008 새해설계 ⑥

포천시공도협회 회장 김 중 환

전국대회 개최할 수 있는 국공장 건립 절실

학교체육으로 적극 육성하기 좋은 운동 강조



포천의 공도는 청호정(신북면)에서 시작해 3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동부정(화현면), 대군정(신북면), 용호정(신북면), 국사정(신북면)을 중심으로 모두 140여명의 공자들이 국공의 전통을 지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 회장은 아들이 갑작스런 사고로 신북면에서 살게 되면서부터 가까운 정에서 연습을 하며 공도를 배웠다고 한다. 국공은 군사적인 요충지였던 포천에서 오랜 세월 전부터 이어져온 전통무예이자 놀이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예(禮)와 의(義)를 중시하는 공도는 남녀 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혼자서도 즐겁게 수련할 수 있으며, 정신 수양과 건강에도 좋다는 점 등이 특징으로 꼽힌다"고 한다.

김 회장은 전국적으로 1만4천여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고 경기도는 70여개의 정이 있으며 포천의 공도는 아직 전국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갈수록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젊은 층에서 공도를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포천에도 명공이 1명 있다. 5단이 상부터 명공으로 들어간다. 명공에게 배울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기도 각종 대회에는 대부분 40~50대의 선수들이 출전하는데 포천에서만 고령의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특히 김 회장은 학교체육으로 국공이 발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공은 몸의 전체적인 균형이 아주 중요하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힘이 실리지 않으면 활시위를 당겨도 엉뚱하게 나간다. 그래서 몸의 균형유지에 매우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

포천시공도협회는 매년 한수이북 10개정 대회를 주최하고 전국 대회에도 출전한다. 그런데 포천은 부지가 넓어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정을 건립한다면 전국에 있는 명공들을 포천에 유치할 수 있다고 한다. 종합운동장 인근에 세우기로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유아무야 된 상태라고 한다. 예로부터 국공이 강한 포천 지역에서 국공장을 새로 건립하

여 전국대회도 유지하고 저변확대도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회장은 특히 정비구입에 40만원이 투입돼야 하지만 몸에 균형을 이루는 운동으로 근육이 발달하고 에너지가 창출되는 운동으로 젊을 때부터 취미로 하면 좋다고 권했다.

직업군인들이 가끔 와서 연습하는데 농번기에는 농촌일손이 바빠 한가롭게 활이나 쏘러 다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미안해 한다고 한다. 그러나 건강을 위한 운동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 각 정마다 입회비 10만원을 접수하면 연습이 가능하다.

김 회장은 포천시에 바라는 것은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정을 신축하면 하는 바람이고 포천신문사에는 대회 개최 때마다 보도하여 포천시민들이 국공을 좋아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추천! 이야기 한마당



이보용 본지 지문위원장

영은 고사하고 물에 빠져 죽을 판이었습니다. 원래 쥐가 나면 누가 도와주지를 않으면 얇은 물에서도 익사를 합니다.

귀족의 아들은 살려달라고 고함을 쳤고, 그 고함소리를 옆의 밭에서 일을 하던 농부의 아들이 듣고 물에 뛰어들어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귀족의 아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시골 소년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둘은 서로 편지를 나누며 우정을 키웠습니다.

한 귀족의 아들이 시골에 갔다가 수영을 하려고 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져 죽을 판이었습니다. 원래 쥐가 나면 누가 도와주지를 않으면 얇은 물에서도 익사를 합니다.

귀족의 아들은 살려달라고 고함을 쳤고, 그 고함소리를 옆의 밭에서 일을 하던 농부의 아들이 듣고 물에 뛰어들어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귀족의 아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시골 소년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둘은 서로 편지를 나누며 우정을 키웠습니다.

귀족의 아들은 살려달라고 고함을 쳤고, 그 고함소리를 옆의 밭에서 일을 하던 농부의 아들이 듣고 물에 뛰어들어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빛나는 우정

어느덧 13살이 된 시골 소년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왔습니다. 중학교에 진학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고민을 하는 시골소년에게 귀족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넌 커서 무엇이 되고 싶어?"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더 할 수가 없어. 아이들도 9명이나 되어서 집안 일을 도와야 해. 둘째형이 런던에서 안과외사로 일을 하지만 아직은 내 학비를 대어줄 형편이 못돼."

귀족의 아들은 이 시골 소년을 돕기로 결심하고 아버지를 졸라서 그 소년을 런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결국 이 시골 소년은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런던의 의과대학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시골 청년은 '포도당 구근'이라는 세균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페니실린'이라는 기적의

약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1845년 노벨 의학상을 탄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그의 학업을 도와준 귀족 소년은 건강하고 성실하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정치가로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26세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정치가가 그만 전쟁 중에 폐렴에 걸려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폐렴은 거의 불치병에 가까운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플레밍'이 만들어낸 페니실린이 급송되어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2번이나 죽을뻔한 생명을 구해준 이 귀족 소년의 이름은 다름이 아닌 영국의 수상이 되고, 세계 제2차 대전 때 전 세계의 지도자였던 '윈스턴 처칠'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면 전 세계가 내 친구입니다." (문의 011-342-5834)

순찰차 LED 전광판 부착

포천경찰서, 법질서 준수 문화 조성

포천경찰서(서장 김규찬)는 3월 13일 법질서 준수 문화 조성 및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순찰차에 LED 전광판을 부착하여 법 정부 차원의 법질서 확립 분위기를 대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번 전광판 설치로 교통사고 및 발차기 등 도로 상황 사전 예고 및 기상악화 시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정보 신속 전파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앞으로 모든 지역경찰 112순찰차에도 LED 전광판을 부착하여 법질서 확립 분위기를 적극 홍보하여 교통사고 및 교통사망사고



포천경찰서는 3월13일 법질서 준수 문화 조성 및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순찰차에 LED 전광판을 부착하여 법 정부 차원의 법질서 확립 분위기를 대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지역경찰 112순찰차에도 LED 전광판을 부착하여 법질서 확립 분위기를 적극 홍보하여 교통사고 및 교통사망사고

上向式 합의정신 지키는 상아탑

대진대학교 대학평의회 공청회 개최

대진대학교 교수협의회(회장 공명수)는 3월18일 오후4시 대진대학교 2층에서 대학평의회 공청회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이종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교협회장 인사말과 대진대학교 대학평의회 교수연구(안)발표 및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공명수 대진대학교 교수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학평의회는 인사를 통해 '대학평의회'의 기본적인 원칙은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합의정신"이라며 "대진대학교 구성원들은 대학평의회 합의정신을 규정을 논의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물론 상향식 합의정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인호 교수가 발표한 대학평의회 안은 개정된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정관 제110조, 제111조에서 대학평의회 구성에 있어서는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회로 구성하며 구성단위의 정원은 교원4명, 직원3명, 학생1명,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

명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문제점이 있어 네 가지 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네 가지 안에 대해 설명했다.

교수협의회는 이날 공청회의 주요 의견을 토대로 대학평의회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4월1일 전체교수회의(평교수)에서 최종적인 토론투를 거쳐 교수안을 표결로 확정후 총장에게 제안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대진대학교 교수협의회는 3월18일 오후4시 대진대학교 대학원 2층에서 대학평의회 공청회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한편, 2007년12월20일 기준으로 전국 191개 법인 가운데 대학평의회 정관변경(제정)을 완료한 대학은 총 157개 대학이고 이중에 대학평의회를 구성한 대학은 총 130개 대학으로 알려졌다. 대진대학교 대학평의회 정관변경일은 2007년12월 18일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의회 임사회 개최

주요 사업장 답사 및 조례 등 안건처리

포천시의회의(의장 이강립)가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제41회 임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임사회에서는 경기도내 우수 시설관리공단 방문 및 주요 사업장 답사가 예정되어 있고, 2008년도 공영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승인안) 및 포천시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현행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일정별로는 21일 경기도내 우수 시설관리공단 방문(윤인시, 안성시, 오산시) 및 24, 25일 이틀간 포천 아트밸리 조성사업 등 11개소의 주요 사업장 답사가 예정되어 있고, 28일 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및 포천시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현행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사랑카드 기금 전달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는 3월18일 포천시청을 방문하여 시장권대행인 심재인 부시장에게 기금 3천920만원을 전달했다.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 3천920만원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지부장 황일현)는 3월18일 포천시청을 방문하여 시장권대행인 심재인 부시장에게 기금 3,92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포천사랑카드, 법인카드, 보조금카드의 사용액의 일정액을 적립한 금액으로 농협에서 매년 지역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황일현 지부장은 농협의 본연의 사업인 농업인(조합원)의 권익증진 뿐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승환 기자 forme85@paran.com

Advertisement for Vision MJ featuring a portrait of a man and text about economic support and Vision MJ services.

Advertisement for Pocheon City Softball Association featuring a group photo of players and text about membership and contact information.